

“철조망 걷어내고 평화의 철길을 깔자!”

권영길(權永吉 북야공파 36세) 대중회 고문 ‘평화철도준비위원장’에 추대

3월18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중회고문 권영길 전 의원은 정계은퇴 후, (사)평화철도준비위원회 위원장이 돼 이날 행사를 주재했다.

모처럼 건강을 되찾은 권영길 위원장의 모습은 믿음직스럽고 당당했다.

“오늘 점심, 평양 옥류관 냉면 먹어. 남녘사람들이 점심으로 평양 대동강변 옥류관 냉면 먹고 돌아와 오후의 일을 볼 수 있는 날을 일상의 생활로 만들자는 게 평화철도다. 남북만의 1일 생활권이 아니라 남북 모두가 1일 생활권이 되는 것이다.”

“평화철도 준비위”를 발족한 (사)권영길과 나야지는 살림살이(아래 ‘나살림’) 권영길 이사장이 밝힌 말이다. 21일 ‘나살림’은 ‘평화철도 준비위’를 발족하고 다양한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나살림”은 “한반도 평화 만들기를 위해 중점사업으로 정했다”며 “지속적인 북지국 건설운동과 함께 평화 만들기 남북철도 잇기 운동을 펴 갈 것”이라 했다.

“평화철도 준비위”는 권영길 나살림 이사장, 이장희 평화통일



시민연대 대표, 양재덕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이사장, 노정선 YMCA전국연맹 통일특위장, 박창일 천주교 예수성심 전교 수도회 신부, 최순영 전 국회의원,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공동대표로, 김영운 남북물류포럼 대표 등 10여 명이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정성희 소통과학연구소 소장, 안재환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부이사장, 백선기 부천시 민교육센터 이사장, 정용일 전 민족21 편집국장, 이진석 「통일뉴스」 만평작가, 정광호 한국노총

사무처장,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 김재갑 금속노조 현대로템지회장 등은 집행위원을 맡았다.

권영길 이사장은 “바이칼호반 시베리아 벌판을 가로질러 베를린, 파리, 런던으로 달려가는 통일고속열차의 모습을 그려 보자”며 “로템 노동자들이 평화와 통일의 염원을 담아 만든 고속열차를 모는 코레일 기관사들, 고된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 가슴 뻥 터지는 해방감에 젖은 관광객들, 얼마나 신명나는 모습이겠느냐. 상상을 품으로 꾸고 모두의 꿈을 현실로 만들자는 것이 평화철도

다”고 했다.

“평화가 밥이고 일자리”라는 것이다. 권 이사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절망의 청년 일자리 창출, 남북경제공동체가 답이다”며 “러시아·중국·북한으로 이어지는 핫산, 나진, 선봉 삼각지가 21세기 세계경제의 보고라고 하지 않느냐”고 했다.

그리고 이 행사의 후원은 새로운 사업으로 각광받는 권영찬(권영찬 해방감에 젖은 관광객들, 얼마나 신명나는 모습이겠느냐. 상상을 품으로 꾸고 모두의 꿈을 현실로 만들자는 것이 평화철도

〈취재: 권오철 기자〉

오죽헌은 강릉 안동권문 추밀공파의 본산

오죽헌(烏竹軒)은 강릉 안동권문 추밀공파의 본산이다. 오죽헌은 의할머니로부터 집을 물려받은 권처균(權處均, 추밀공파 22세)이 집 주변에 까마귀처럼 검은 대나무(烏竹)가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보고 자신의 호를 오죽(烏竹)이라 짓고 집을 오죽헌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오죽헌 하면 신사임당이 유곡 이이(1536-1584)를 낳고 살았던 집으로만 알려져 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 조선 중기까지만 하더라도 재산 상속은 아들과 딸을 가리지 않고 순서대로 상속시켰다. 특히 아들이 없으면 묘소를 돌보라고 사위한테도 노비와 전답을 물려주는 관례가 있었다.

오죽헌은 15세기 후반 경 조은(釣隱) 최치운(崔致雲, 1390-1440)이 지은 건물로 그의 아들 최응현이 둘째 사위 이사온에게 물려주었다. 이사온은 의문팔을 신명화에게 혼인시켰으나 신명화와 이사부인 사이에서는 딸만 다섯이었다. 그 중 둘째 딸이 신사임당이고 안동권씨 권화(권전균의 아버지)와 결혼한 딸은 넷째 딸이다. 이사온도 아들이 없자 다시 그의 사위 신명화에 재산을 물려주었고 신명화의 부인이자 신사임당의 어머니인 신씨(神氏)는 권계학이 중국에 사신으로 갔을



오죽헌과 동몽실.



권계학이 중국 백이숙제 사당에서 탁본해 온 주희의 글씨.



청풍당의 옛 모습(청풍당은 설계도에 따라 지은 집이라고 한다).

권처균(1541~)에게는 묘소를 돌보라고 집(오죽헌)과 노비와 전답을 물려주었던 것이다. 이때부터 1977년 박정희 대통령 때 문화재청 지정 문화재로 오죽헌이 지정된 후 오죽헌에서 살았다. 그야말로 오죽헌은 강릉 추밀공파의 종가택이었던 것이다.

오죽헌과 곁하고 있던 청풍당(淸風堂)은 영조 때 권계학이 1774년 이사온에게서 다섯 딸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줄 때 넷째 딸의 아들인

때 백이숙제 사당에서 주자의 글씨로 새겨진 ‘백세청풍百世淸風’에서 따온 이름이다. 그러나 정화 사업을 통해 청풍당은 헐리게 되고 오죽헌은 문화재관리청으로 넘어가 버렸다. 권응자씨(추밀공파 38세)는 현재 옛 집터 오죽헌 앞에서 청풍 카페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새로운 청풍을 이어가고 있다.

취재 권행완

3/31 한반도 평화와 남북철도 연결기원 <1차 열차평화기행> 권영길과 함께

서울역에서 백마고지역까지

남북종단~ 대륙횡단 열차평화기행 여행연습

열차 타고 백두산 가자!!! 열차 타고 중국 유럽 가자!!!

◆일시 : 2018. 3. 31.(토) 09:00~19:30

◆장소 : 서울에서 철원

◆주최 : (사) 평화철도(이사장 권영길)

프로그램

09:00 집결(서울역 대합실)
09:27 서울역 출발, 열차 안에서 자기소개, 전노가 토크쇼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남북철도 연결 전망>, 영상, 노래 등
12:19 백마고지역 도착
12:30 두루미마을 점심식사 및 철원군민과의 만남
13:30 백마고지-노동당사-금강산길-평화전망대-월정리역(유전선 이남 마지막 역)
16:39 백마고지역 출발, 열차안의 프로그램(소감 발표, 특강 등)
19:16 서울역 도착, 애산

◆참가비 1인당 5만원(자비, 식사, 연기관광비 등 포함), 조동역석 4만원

◆신청 청 40명 선착순 마감/접수 010-9898-6150

국민은행 454101-01-207077 권영길(평화철도)

◆양우 전국 각 지역 출발-서울역(KTX 1칸 이용)-경의선 도라산역 또는 경원선 백마고지역(DMZ train 1칸 이용) 추진 예정



안동권씨 전주, 완주 종친회

안동권씨 전주완주 종친회는 1967년 발족한 후 전주시 완산구 경기전길 39번지 종친회관을 건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인 전주 한옥마을은 9만여 평의 구역 안에 700여 채의 기와집이 모여 있는 최대 규모의 한옥집단마을이고 한옥 마을은 현재 천만 명이 다니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조선

태조의 어진을 모신 경기전과 전통 성당을 비롯하여 전주향교와 한옥이 어우러져 있고, 우리 안동권씨 전주완주 종친회관은 경기전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태조로 등 전통 문화거리 전주한옥생활체험관 전통문화센터 전통문화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첫 번째 매력은 바로 먹을거리입니다. 전주비빔밥, 콩나물

국밥, 한정식 등 전통 먹거리부터 길거리 음식, 막걸리, 가맥에 이르기까지 전주만의 넉넉한 먹거리를 맛보기 위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전주에 안동권씨 종친님들께서 전주한옥 마을에 오시면 우리 안동권씨 전주완주 사무실을 들리시어 휴식도 하고 짐도 맡기고 관광 안내도 받으시며 종친회관 건물 1층에도 맛있는 음식점이 있으니 이용하면 좋을 듯 합니다.

안동권씨 전주완주 종친회 이동

☎063)284-4486



변호사 권영문 법률사무소 설립 인사

저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지원장을 끝으로 법관생활을 마치고 **법무법인(유한) 正人**에서 변호사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경북 안동고(31회), 한양대 법과대학(84학번) 졸업
- 부산대 법과대학 대학원(04학번) 수료
- 미국와싱턴주립대학교 로스쿨 방문학자 과정(1년) 수료
- 사법시험 34회, 사법연수원 24기
- 부산지법,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산지법 가정지원, 부산고법 판사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2009년)

- 창원시 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2010년)
- 부산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2012년)
-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통영시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2016년)
- 창원지법, 부산지법 부장판사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지원장

변호사 권영문(대중회 부회장, 동정공파 34세) 올림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28, 12층, 13층 1301~1304호(거제동, 부산법조타운)

·업무개시 : 2018.3.12.

·대표전화 : (051) 911-6161

www.jeonginlaw.com